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재난(catastrophe) 모티프와 공동체의 이상

서은혜*

목차

1. 서론
2. 개인의 질적인 변환과 공동 운명에 놓인 타자의 발견
3.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이상촌 건설의 꿈
4. 일제 말기 '징벌'로서의 재난 형상화와 시대적 대응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종교적 감성 구조를 그의 다양한 사상적, 정치적 궤적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 매개로 보고, 소설에 나타난 재난(catastrophe) 모티프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래 재난의 상상력은 인간의 무기력함과 초월적 운명への 희구, 신에 의한 징벌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적 감성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중에서도 이광수 소설의 재난 장면은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대규모 방향전환의 의미를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무정>의 삼랑진 홍수 장면은 매우 유명한 바, 이것이 초기작품에 그치지 않고 일제 말기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단순히 '민족의식'이라고 간단하게 환원해 버리기 힘든 다양한 의미망을 보여준다. 특히 이광수의

* 홍익대학교 강사

각 시기별 사유와 정치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초기 작품인 <무정>, <어린 벗에게>에서는 홍수나 파선(破船) 모티프를 통하여 공동 운명에 놓인 타자를 발견하고 그를 '구제'하는 윤리적 책임에의 각성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였다. 유명한 삼랑진 홍수 장면이 그러하며, <어린 벗에게>에서 개인적 사랑의 대상을 '동포'와 '인류'의 층위에까지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재난 장면이었다. 이 때 '승고'라는 감정 범주나 '영혼'과 같은 기독교적 개념이 매개로 등장, 공동 운명에 놓인 타자와의 연대라는 주제를 정당화한다. 중기 작품인 <흙>에서는 굶주림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식민지 현실을 '지옥'이라는 종교적 수사로 명명하면서 식민지인들의 무기력함을 부각시켰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이상촌 건설의 의지를 정당화하였다. 후기 소설인 <사랑>은 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사회, 우주 운용의 원리로까지 확장시킨 작품으로서, 전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을 아귀다툼이 난무하는 사회악의 결과인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파시즘 하의 시대적 상황의 대응 양상을 보여준다. <원효대사>에서의 전염병 구제 장면 역시 작품의 중심 서사인 '파계-구제'로 이어지는 결절점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두타행을 실행하는 원효의 모습에 수양동우회 사건 무렵의 이광수의 내면 풍경이 겹쳐진다는 점도 이와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광수의 소설 속에서 재난 모티프는 타자와의 관계 및 윤리적 각성의식의 계기, 파행적 근대화를 시행하는 식민지 현실의 형상화, 파시즘 하 시대상황의 은유로서 각 시기별로 다양하게 의미화 되었다. 이러한 재난의 상상력은 이광수의 준비론적 사상뿐만 아니라 아나키즘, 기독교적 상상력 등과 다층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재난, 승고, 식민지 근대화, 이상촌, 상호부조, 파시즘

1. 서론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이광수만큼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낸 작가는 드물 것이다. 이는 작가의 변화 많았던 삶과 사상의 궤적, 수많은 작품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 일제 말기 한국문학 연구의 깊이가 더해져감에 따라 이광수의 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제 말기 이광수 작품에 나타난 불교 담론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혹은 기독교적 원리의 내재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비롯하여, 대일협력의 시기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초·중기 문학세계를 '정치적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그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이광수 문학을 배태한 보다 근원적인 감각과 사상을 재규명하는 논의¹⁾도 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광수 문학에 있어 '종교성'의 차원을 재론해야 한다는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광수 문학에 있어서 '종교성'이 다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둔 특수한 문학적 실천이기 때문이다.²⁾ 이광수 문학의 종교성이란 한 개인의 사상적 근저를 이루는 배경이면서

1) 이러한 연구는 근대적 주제, 윤리, 종교, 사상의 영향관계 등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행해지고 있다. 이광수 문학의 '죄의식'을, '책임 없는 죄'의 성격을 지닌 것이며, 그것이 전도된 형태로서 '죄 없는 책임'을 되치는 특수한 근대적 주체의 탄생으로 설명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서영채, 「죄의식, 원한, 근대성: 소세키와 이광수」, 『한국현대문학연구』 35집, 2011. 12, 35-68쪽.

2) 이광수 문학에 있어서 종교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①반복 모티프의 의미를 밝히는 경향, ②종교 사상의 형성 과정을 실증적으로 추출하는 경향, ③이광수의 사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종교적 사유를 규명하는 경향으로 대별된다. 이광수 문학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희생양 모티프를 기독교적 상상력의 구체화로 파악한 연구로 한승욱,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희생양 모티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2005, 13-32쪽. 운허 이학수와 이광수의 관계를 통해 이광수 불교 사상의 본류를 밝힌 방민호, 「이광수의 『사랑』과 종교 통합 논리의 의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음, 2011, 239-270쪽.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을 기독교적 사유의 산물로 해석한 박솔기, 「이광수의 개조론과 기독교 윤리」, 『한국현대문학연구』 35집, 2011.12, 69-94쪽 등이 있다.

도 동시에 역사적, 현실적, 사상적 맥락과 역동적으로 얽혀 있다³⁾ 즉, 특수한 상황적·현실적 맥락이 우위에 선다는 것인데, 문학과 종교 사이의 상호 침투 관계 및 그것이 지니는 현실 규정력의 함의가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가 최근 제출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순교자 형상'을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도산 사상과 그로 인한 서북 문인의 감성 구조로 설명하는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주체의 양성이라는 측면으로 종교와 정치 간 결합을 설명한다. 도산 청년 수양론의 핵심을 "기독교적 원리의 차용을 통한 청년들의 자기완성 욕구와 민족애의 결합"⁴⁾으로 보고, 이광수 문학의 순교자 형상화를 '보편을 지향하는 개인'의 문학적 형상화의 결과물로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근대적 개인, 개성에 민감한 청년들이 공동체, 민족의 개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매개가 종교적 원리였으며, 이로 인하여 각자의 온전한 개성을 지니고 부단한 자기 연마를 통해 공동체를 이룩하는 수양 운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근대 초기의 개성론과 민족주의 이념의 결합을 종교적 원리가 매개하고 있었다는 설명은, 이광수 문학의 핵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효한 설명으로 보인다.

종교와 윤리, 종교와 정치의 접속 지점을 말하는 데 있어 다양한 작품에 나타난 인물형상, 모티프, 주제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광수 문학에서 종교적 사유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근저에 내재된 주요한 요소라는 점, 그것이 현실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획적 산물'이라기보다는 특정

3) 이광수 작품의 죄의식의 서사와 종교 담론을, '절대적이고 합법적인 선'을 추구한 근대성의 윤리 자체에 내재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작가 이광수에게 있어서는 윤리와 정치의 합일이 가능하다는 환상에 내포된 예견된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 설명한 논의는 이광수의 사상적 측면과 종교성의 관련에 대한 적실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서영채, 「이광수, 근대성의 윤리」, 『근대문학연구』 19집, 2009, 147-178쪽.

4) 정주아, 「서북 근대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6쪽.

한 세계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감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글에서는 이광수 작품에 쓰인 반복되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정치, 종교, 문학의 관련 양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한 모티프가 반복되는 것으로부터 작가의 핵심적 세계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의 내용을 판별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반복에서 그치지 않고 변주되는 과정을 정밀히 살핌으로써 현실 문맥과의 접합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할 것은 이광수 작품에 쓰인 '재난(catastrophe)' 모티프의 변주 양상과 이것이 드러내는 윤리적 혹은 정치적인 주체의 특성이다. 이광수 작품의 중심 서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개별 주체들의 끊임없는 윤리적 쇄신과 반성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양'이라는 단어로 표상되는 개별적 주체의 노력이 윤리적, 정치적 함의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로 손쉽게 환원되기 이전의 개별 주체의 '감각'들을 포착하는 과정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광수의 소설에서 재난 모티프는 모티프 자체가 환기하는 종교적 감성과, 서사에서 그 모티프가 담당하는 역할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라는 주제가 결합된 것이어서 중요하다.

'재난'은 disaster⁵⁾, cataclysm, catastrophe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었으며, 용례상 미세한 차이가 있다. 서구의 신학, 문학 전통에서 격변(Cataclysm)은 주로 "신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변함없는 질서에 상반되는 제현상"으로서, 알 수 없는 지구 과학적 변동에서 기인하는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 인간의 도덕적 판단의 적용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의미화 되어 왔다. ① 혼돈 속에서의 새로운 질서의 예비 ② 신과 선택된 인간들이라는 문제 ③ 오만한 자들에 대한 징벌 ④ 송고미의 고취 등과 관련하여 삽입되던 모티프였다.⁶⁾ 이광수의 경우 제시

5) '재해'를 의미하는 'disaster'는 주로 자연현상, 기후변동에 의해 파생되는 천재지변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된 네 가지 스펙트럼을 모두 보이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① 혼돈 속에서의 새로운 질서의 예비라는 일종의 '방향전환'적 측면을 서사적으로 주요하게 활용한다. 본래 '재난'을 뜻하는 그리스어 *katastrophein*은, *catastrophe*의 어원으로서 본래 방향전환(*overtum*)을 뜻하는 말이다. 재난은 그 파괴의 범위와 강도 면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연상시키는 부정적 경험이나, 역으로 살아 남은 자들이 다시 질서를 정립해야 할 계기가 되기도 한다.⁷⁾ 이광수는 작품 속에서 재난 모티프를 활용하면서 조선 전체의 '방향전환'의 필연성을 정당화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전환의 방향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재난을 '방향전환'의 의미가 강한 '*catastrophe*'의 의미로 규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⁸⁾

『무정』의 삼랑진 홍수 장면에 대한 해석이 대표적이듯 이광수 문학에서의 '재난'은 흔히 '민족주의 지향' 혹은 파시즘적 사고방식과의 연관성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되어 왔다. 시기와 대상 작품을 확장시켜 이를 살펴볼 경우 각 작품에서는 기본 기조에의 차원에서는 일관되면서도 창작된 시기, 작가의 처지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 의미의 사회적 이상 및 윤리적, 정치적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독해하는 것은 이광수 문학의 성격을 더욱 풍부하게 규명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개인의 질적인 변환과 공동 운명에 놓인 타자의 발견

이광수의 소설에서 인간이 지닌 힘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재난'은 개인

6)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장영수 역,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89, 93-95쪽.

7) Nasrin Qader, *Narratives of Catastrophe*, Fordham Univ. Press, New York, 2009, p.6.

8) 이 글에서 포함하는 재난 모티프는 홍수, 가뭄, 태풍 등 자연 재해와 관련된 것,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삶의 구조가 문제되어 파생된 기아, 질병 등을 의미한다. 재난의 범주 및 구분에 대해서는 Pitirim Sorokin, *Man and Society in Calamity*, Greenwood Press West Port Connecticut, 1968, pp.13-16 참조

의 발견 및 그 개인을 기초로 하는 연대감 형성, 나와 타인을 초월한 운명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광수는 재난의 참혹함, 위급성 등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를 포착하고, 개인의 그 변화를 타인과의 교류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 <무정>의 삼랑진 수해 장면에서 나타나는 '계몽적 존재-계몽 대상'의 이분화 현상의 이면에는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비약적 발전 혹은 극적인 변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인 변환을 겪은 자들의 수평적 연대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집단'의 탄생으로 이어진다.⁹⁾

형식을 사이에 두고 서먹했던 선형과 영채, 그리고 병욱은 삼랑진 홍수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감정의 변화를 맞게 된다. 수재민들을 향해 동정과 연민을 함께 느끼면서, 그 공통된 감정에 기초해 각 개인들이 '조선의 일꾼'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일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위적인 설정 뒤에는, 인간의 감정 범주를 매개로 새로운 공동체 이상에 필요한 '원동력'을 서사화하려는 작가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 '원동력'에 해당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많이 이야기되어 온 것처럼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개인의 발견이 첫째이며, 두 번째로는 그러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감정의 움직임, 즉 공감의 발견이다. 삼랑진 홍수 장면이 고유의 특성을 지닌 '개인'이라는 것의 실체를 발견하는 과제와 관련되어 있음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네의 속에는 기인(個人)을 뛰어넘는 일종의 근심과 두려움이 찬다 「큰물」 「홍년」, 흐는 싱각과 물소리와 몽글몽글흐는 구름과 집을 일코 뉘흔쌍으로 괴어오르는 사름은 그네로흐야금 기인이라는 싱각을 이져바리고 공통흔 싱각……즉 사

9) 이광수의 동정론을 '감정을 기반으로 한 인류애, 민족애로의 확장'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동정의 갈구'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로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71-147쪽 참조.

름으로 저마다 가지는 생각을 가지게되었다 (중략)

『평양시가지에도 물이 들어옴되가있나요.』하고 선형이가 영치를 보며 못는다
『들어오구말구요 성년에는 별로 들어오는일이 업지마는 외성에는 흔히 들어
옵니다 그넛거두 외성 신시가로 비를 탕다구 다녔는데요.』하고 선형의 눈을 실
적 본다 선형이 얼는 눈을 피하얏다 병욱은 한참 듯다가 빗긋 우스며 속으로
『너희 둘이 잘 이야기를 한다.』하얏다(중략) 네 사름은 한참이나 말업시 저 보고
십흔테를 멀거니 보고잇섯다 그러나 네 사름은 공통흔 생각을 바리고 각각 제
가 되얏다 그러고본즉 여기 서서 구경홀 즈미도 업서졌다¹⁰⁾

이광수는 영채와 선형의 어색함, 그리고 그 해소 과정을 작품에서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 두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잊게 된 것은 엄청난 규모의 자연 재해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나서의 일이다. 자연의 파괴적 힘에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운명, 그에 대한 걱정, 체념 등의 복잡한 정조가 그들로 하여금 “7인을 이겨바리고 공통흔 생각”을 하게끔 한다. 공통의 정조로 그들은 한 순간 ‘나 자신’의 테두리를 초월하게 된다. ‘개인’을 뛰어넘기도 하고 ‘개인’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는 서술 뒤에는, 개인 및 ‘연대하는 개인들’으로서의 집단의 성립 조건에 대한 작가적 관심이 녹아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갈등의 해소 차원이 아니라, ‘개인을 잊어버리고 공정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인간 조건의 발견’이다. 공동의 운명을 맞은 사람들은 너와 나라는 테두리를 모두 벗어난, 더 큰 범주의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나의 확장’이나 개인의 확장으로서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내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관계 속의 인간 조건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형식과 수재민들의 관계에서 추출되는 계몽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 운명체의 나아갈 길을 스스로 비추겠다는, 독특한

10) 이광수, 김철 역주,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2004, 680-681쪽.

자발성과 열정으로부터 비롯된 특정한 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삼랑진 홍수 장면을 두고 흔히 계몽의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측면 가령 계몽 주체와 계몽 대상의 확연한 분리 및 계몽 대상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작가의식이 녹아 있다고 종종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 장면의 핵심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홍수 장면에서 서술의 초점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수재민과 청년들의 공동 운명이고, 청년들의 단합은 수평적 차원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작품에서 강조되는 것은 수직적 교화, 감화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협소한 층위를 벗어난 합일감, 그에 따르는 충만감이다.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차표속에는 저기서 들들 써는 저 스름들……」아가 그 짧은 사람의 싹도 몇 방울 들었श्य 부대 다시는 이러흔 불상흔 경우를 당흔지말게하야달라고요?」흔고 형식은 식로 결심흔흔드시 한번 몸과 고기를 흔든다 세 처녀도 그와갓히 몸을 흔들었다

이제에 네 사람의 가슴속에는 꼭 갓흔 「나홀일」이 번기갓히 지나간다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업시 원통 흔 몸 한 마음이 된듯하얏다¹¹⁾

인용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가 해야지요'라는 대단원의 결말로 향해가는 과정에 놓인 것이다. 운명 공동체의 자각과 그 속에서의 개인의 위치에 대한 각성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준비론적 사상의 서사화'라는 의미 뒤에 내재된, 그 사상에 '공감'하는 인물들의 태도는 확실히 특징적이다. 그들은 한순간 "너와 나라는 차별이 업시 원통 흔 몸 한 마음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갖는 무한한 일체감은 종교적 황홀경과도 비슷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때 이광수가 개인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공동 의식만을 강조

11) 위의 책, 708쪽.

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초월적 느낌 속에서도, 각자의 개성에 근거한 “『나홀일』”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그들의 뇌리를 스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식, 영채 등이 선진 문명을 배우러 가는 길이 단지 자신의 영달을 위한 길이 아니요, 참혹한 재난을 당하여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무력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임을 환기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감정의 융화”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민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그것을 ‘민족’의 범주로 바로 전환시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감정 범주를 활용한 윤리적 주체의 탄생 과정의 특이성에 주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벌거벗은 뚝산에는 갑자기된 폭포와 시냇가 격구로 밧여달닌듯이 마치
검은 바탕에다가 여기저기되는도로 흰줄을 그어 노은것긔다 그 기천들이 벌거
벗은 산들의 살을 깎고 뼈를 우귀어가지고 내려오는 소리가 무섭게 흘러가는
강물소리와 합하야 웅대흔 합쥬(合奏)를 두는것긔다

쌍은 목말랐던판에 먹을수잇는도로 실컷 물을 먹어서 무럭무럭 흥게 되었다
마치 디심(地心)식지 들여져졌슬것긔다 하날우이며 쌍밋치 원통 물세상이로다
이 물세상에 서서 사뭇들은 『엇지되랴고』 흥고 하날만 우리러본다

<무정>의 심량진 홍수 장면은 ‘숭고함’이라는 감정 범주와 관련된 ① 종교성, ②자연의 거대한 힘에 맞서 극복하려는 ‘개인’의 발전, ③비극적 운명에 처한 자들에 대한 공감 등의 의미를 지니는 장면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숭고라는 감정 범주가 지닌 직접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 번째 의미는 숭고함으로부터 촉발된(전환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숭고와 종교성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데, 모든 종교가 신성하고 거룩한 힘에 대한 외경과 파악

12)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역,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385-398쪽.

불가능성을 기본 요건으로 가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러하다. <무정>의 수해 장면의 경우 '큰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된, 본능적인 반응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칸트는 '승고'를 강력한 위력을 지닌 자연 현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력하다는 감정과, 그러한 위력마저도 극복하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느끼고 고양됨을 느끼는 감정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하였다.¹³⁾ 이처럼 인간이 승고를 판정할 수 있으려면,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수재민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자신들만의 다짐'을 행한다고 해석되어 온 홍수 장면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에 맞닥뜨려 특정한 '고양된 힘'을 이상적 공동체 건설에의 동력으로 서사화하려는 기제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공감의 경우,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촉발된 승고함의 감정이, 자신은 그로부터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결합되며 발생하는 감정이다.¹⁴⁾ 형식, 선행, 영채, 병육은 모두 좌절에 빠진 수재민들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타는 "차표 속에 저 젊은 사람의 땀도 들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물론 이 때의 자각은 형식 일행이 고통과 좌절에 처한 인물들에 대한 명백한 거리감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거리감을 통해서만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더욱 깊이 자각할 수 있다는 점에 수재 장면의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무정>의 수재 장면은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촉발된 승고의 감정과 그것이 파생시키는 사회

13) 칸트는 '승고'를 인간에게 존재하는 두 종류의 자기보존 욕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하나는 감성적, 신체적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 정신적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구이다. '승고'를 자연의 위력에 맞서 그것을 극복하는 이성적, 정신적 존재로서의 고양감이라 설명한다면, <무정>의 수재장면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승고의 감정 범주를 서사화하여 이상적 공동체 건설의 동력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 칸트, 김상현 역, 『판단력 비판』, 책세상, 2009, 166-167쪽.

14) Edmund Burke, 김혜련 역, 『승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한길사, 2010, 112-115쪽.

적 감정으로서의 '공감'을 그려내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동력과 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물의 독특한 감정 범주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전환은 다른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사랑 김일련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가득 찬 <어린 벗에게>(1917)의 임보형을 보자. 그는 첫사랑 김일련의 간호를 받으며 '사랑'이라는 생생한 감정에 눈뜨게 된다. 그는 조혼의 풍습을 비판하며 자신의 생생한 열정의 대상인 김일련을 그리워한다.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병고로 괴로워하던 그에게 간호를 해 주던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愛か>(1909)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문 저편에 둔 소년의 절박함과 유사하다. 두 작품의 차이가 있다면 <어린 벗에게>에서는 개인적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일련이 그 범주를 넘어서서 '동포', '인류'의 일원으로까지 그 범주가 확대된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장면이 삽입된다는 것이다.¹⁵⁾ 그러한 인식의 계기는 배가 난파되는 사건을 통해서이다.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난파된 배로부터 떨어져 나와 널쪽을 잡고 있던 김일련과 독일 부인을 사이에 두고 누구를 구할까 고민하는 장면은 매우 흥미롭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 쓴 이광수의 산문과 비교해 읽을 수 있다.

①

나는 다시 생각하였나이다. 아직 國家가 있다. 國家가 있으니 内外國의 別(別)이 있다. 그러닛가 다 살지 못할 境遇에 내 同胞를 살림이 當然하다하였나이다. 그러나 斷行치 못하고 또 한번 물에 잠겼다 나왔나이다. 나는 이에 決心하였나이다. 찰하리 이 널쪽을 뒤편엿혔다가 둘 중에 하나 사는 者를 살리리라 하였나

15) <어린 벗에게>의 서사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이 난파 장면 역시 서사적 개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주로 사랑이라는 근대적 감정을 묘사하고 조혼의 혼인관을 비판하는 이 작품에서 난파 장면은 동포애와 개인적 사랑 등의 범주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를 발견하고 '사랑의 범주 확대'를 그리고자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다. 아아 나의 사랑하는이의 生命이 엇지 될는가. 『하나님이시어 容恕하소서』 하고 나는 널쪽을 퍽 노했나이다.¹⁶⁾

②

그러나 야소교는 각개인의 기도와 사색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므로 각개인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표준은 각개인의 영혼이외다. 개인은 각각 개성을 구비한 영혼을 가진다 함이 실로 개인의식의 근저외다. 신윤리의 중심인 『개성』이라는 사상과 신정치사상의 중심인 민본주의라는 사상은 실로 야소교리와 자연과학의 양원에서 발한 일류외다.

각인에는 영혼이 있다, 여자에게도, 노복에게도, 무릇 인형을 가진 자에게는 다 영혼이 있다 함은 각 동포를 사랑하여라, 개인을 존경하여라 하는 뜻을 포함하며 병하여 만인이 평등이다(능력에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인된 지위, 인된 자격에는) 함을 암시함외다.¹⁷⁾

인용문 ①에서 주인공은 개인적 사랑의 대상이자 ‘동포’인 김일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 부인을 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 이전까지 서술된 애절한 사랑의 주체로서의 임보형이라면 당연히 김일련을 구하고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는 임보형이 이 순간 문득 멈춰서서 일련과 독일 부인 사이에서 누구를 구할지 생각하도록 한다. 재밌는 것은 이 사유의 과정에서 개인적 사랑의 대상이었던 김일련은 같은 국가에 속한 ‘동포’가 되고, 혹은 독일 부인과 똑같은 생명을 지닌 인류의 일원이 된다. 개인적인 열정의 대상이 그 범주를 전환하는 순간이다. 이 범주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를 확정하지 못한 채 임보형은 널쪽을 엮어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길’ 생각을 하게 된다.

16) 이광수, 『어린 벗에게』, 『청춘』 10호, 1917, 44쪽.

17) 이광수,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이광수전집』 10, 우신사, 1979, 19쪽.

임보형이 망설이지 않고 김일련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두 명 다 소중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쓰인 평론(인용문 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위적으로 손상시킬 수 없는 '영혼'의 존엄성은 인간 평등과 인류애의 근거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이 지닌 각각의 생명은 그 각자의 고유성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할 만큼 소중한 것이다. 위의 작품에서, 망설이던 주인공은 "널쪽을 뒤쳐 었었다가 둘 중에 하나 사는 자를 살릴", 어찌 보면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광수가 이러한 설정을 한 근거에는,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개인의 사랑과 추상적인 인류애의 충돌이 그렇게 뚜렷이 나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김일련을 구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대상이어서이기도 하고, "내 동포"이어서이기도 하며, 혹은 생명을 지닌 인간이어서이기도 하다. 이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바로 파선 장면인 것이다. 이 복잡한 범주들을 지닌 사회 내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그 범주들을 한꺼번에 초월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라는 문제를 최초로 환기한다.¹⁸⁾ 즉 <愛か>(1909), <운광호>(1918) 등에 보이는 열정에 충실한 낭만적 주체이자, 동시에 <혈서>(1924)의 주인공, <유정>(1933)의 최석과 <사랑>(1938)의 안빈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통해 탄생한 지사적 주체¹⁹⁾의 원형을 이 파선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정>, <어린 벗에게>에서 이광수는 재난 모티프를 통하여 개인의 질적인 변환과 타자와의 공동 운명의 자각이라는 주제를 말하고자 한다. 이 때 개인의 질적 변환은 숭고와 공감이라는 특정한 감정 범주의 자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탄생된 새로운 '개인'은 때로는 조선의 일꾼이라는 계몽적 주체로,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낭만적 주체로서 복합적인 성격

18) 보편적 인류애를 고창하거나 혹은 근대와 힘의 논리를 예찬하는 이광수의 사상적 딜레마를 '수단적인 것으로서의 금욕인 힘의 윤리와 자기목적적인 것으로서의 금욕인 윤리적 보편성을 동시에 인정'했기 때문이라 분석한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서영채, 『아침의 영웅주의-최남선과 이광수』, 소명출판, 2011, 376-379쪽.

19) 서영채, 『사랑의 문법』, 문학동네, 2004, 126-128쪽.

을 보여준다.

3.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이상촌 건설의 꿈

이광수의 <흙>(『동아일보』, 1932.4.12-1933.7.10)은 동아일보 주도의 브나로드 운동을 서사화한 대표적인 소설로, 일제의 정책에 부합하는 개량주의의 산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과연 개량주의를 바탕으로 한 브나로드 운동의 서사화로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²⁰⁾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최근에는 <흙>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성의 성격²¹⁾, '차이'의 상상적 불합과 초월적 전망 투사, 민족적 특수성 발견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의미²²⁾, 기독교적 사유와의 관련성 등 작품 논의의 폭이 더욱 다채로워졌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는 적극적인 현실 비판과 연관되는 작가의 정치적, 종교적 사유가, 특정한 개인들 및 그들로 구성된 집단 탄생에의 강한 희구로 수렴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개인 및 집단'의 관계는 근대적 규율 체계의 내면화라든지, 제국의 모방이라는 관점에서보다는 특정한 종교적, 정치적 사유에 바탕을 둔 '초월적 주체'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사실상 이 작품은 1930년대 초반 수행된 조합운동을 주축으로 하는 기독교 계 농민 운동과 밀접한 친연성을 지닌 것으로, 그 사상적 근저에는 이상촌

20) 이와 같은 평가는 <흙> 연재 전후의 작가의 언급으로부터 추론한 바가 크다. "나는 이젠 영 박사도 그 좋은 재주와 공부를 가지고 심기 일전하여 조선에서 큰일군이 되어지이다 하고 빌고 있습니다. 사람이 뉘 허물이 없으리마는 고치며 좋은 일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이 전부 허물이 있지 아니합니까."(『흙을 쓰고 나서』, 『삼천리』(1932.9))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결다리텍스트(paratext)의 언급을 말 그대로 적용시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는 재고가 필요하다.

21) 오윤호, 『『흙』의 식민지 근대와 수사적 특이성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Vol.5 No.2, 2004, 39-63쪽.

22) 차성연, 『1930년대 농촌계몽소설에 나타난 농촌의 의미-이광수의 『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7집, 2011, 97-121쪽.

건설에 대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²³⁾ 이 과정에서 이상촌과 대비되는 비참한 현실은 마치 재난을 당한 인간세상과 같은 것으로 비유된다.

주지하다시피, <흙>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기독교계 인사라는 것²⁴⁾, 허승이 기독교계에서 수행된 조합 운동의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²⁵⁾, '지상천국' 등의 종교적 수사를 통해 '살여울'을 묘사하려 하는 것 등은 이 작품이 기독교계 민족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농촌 운동에 일생을 바치겠다는 허승의 소명의식, 정선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주제, 갑진이나 정선, 이진영 등 등장인물들의 '회개' 등은 기독교 교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서사라 할 수 있다.²⁶⁾

그 중에서도 <흙>의 중심 서사로서 현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일제의 농촌 정책의 대항점으로서의 이상촌 운동이다. <흙>에서 핵심 서사는 주인공 허승의 농촌운동이며,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을 중심에 둔 빈민 구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묘사되는 농촌의 참상은 허승의 조합운

23) 이와 관련하여 <흙>을 기독교적 원리와 근대적 규율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국민 만들기 의 서사로 해석한 연구가 있다. (서희원 『이광수의 문학, 종교, 정치의 연관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3-146쪽) 기독교적 원리와 정치적 영역에 대한 비판의식의 결합을 통하여 <흙>의 서사를 설명해 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정치적 영역의 내용이라는 것이 '근대적 규율체계를 내면화한 새로운 국민상'이라는 점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작품에서 주로 비판되는 정치적, 경제적 현실은 '도회/농촌'의 빈부격차,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파행적인 식민지 상황이며, 이러한 비판을 거쳐 허승이 살여울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24) 허승의 아버지는 대성학교에서 교육받은, 신민회 관련 인사였으며 허승이 존경하고 따르는 한민교 선생은 배재, 보성학교에 있는 감리교 계열의 기독교 인사로 그려진다.

25) 1930년대 초반 장로회의 대표적 농촌운동이었던 예수촌 건설 운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물욕을 통제하고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놓음으로써 표준적 토지소유를 실현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상호부조의 협동생활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장규식, 『1920년대 개조론의 확산과 기독교 사회주의의 수용, 정착』, 『역사문제연구』 21집, 2009, 128-129쪽.

26) 신사회와 등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지상천국'이라는 점, 도덕적 수양을 언급하면서 제거해야 할 내면의 열등감정을 가리켜 '악마'라고 표현한 점, '신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연유하는 단어라는 점 등을 들면서 <흙>과 <무정>에 나타난 기독교적 맥락을 짚어낸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철호,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인격'과 그 주체 표상 '흙'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6집, 2011, 103-131쪽.

동의 필연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라 볼 수 있다. 농촌은 굶주림과 전염병 등으로, 차마 인간이 살기 힘든 “지옥”과 같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 여남은 살밖에 안 된 계집애들이 발은 말할 것도 없고, 차마도 옷통도 다 벗고 땀국을 흘리며 부엌에서 먹을 것을 끓였다. 찐 조밥이면 상등이다. 만주 좁쌀 한 줍에 풀 잎사귀 한 줍, 물 한 사발을 두고 젖은 나뭇개비를 때어서, 불이라는 것보다도 썩은 연기로 끓인 것이 그들의 먹을 것이다.

구더기 움질거리는 된장도 집집마다 있는 것이 못 된다. 모래알 같은 호렘도 집집마다 있는 것은 못된다. 이렇게 참혹한 것을 먹고 나서 어슬어슬하여 오면 모기가 아우성을 치며 나오고, 곤한 몸을 방바닥에 누여 잠이 들 만하면 빈대와 벼룩이가 침질을 한다. 문을 닫자니 찌고, 열자니 모기가 덤비지 않느냐. 아아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이여! 썩을 피워 눈물이 쏟아지도록 연기를 피우면 모기는 아니 덤비지마는, 썩이 꺼지기만 하면 우와 하고 총공격을 하지 않느냐. 아아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이여.²⁷⁾

<무정>에 나온 홍수 장면보다 더욱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당대 농촌의 현실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의 원인은 일제에 의해 시행된 파행적 근대화 정책이다.²⁸⁾ 비참한 농촌의 현실은 주로 ‘향락의 공간’인 서울과 대조적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서울에 모든 위생시설, 편의시설이 집중

27) 이광수, 이경훈 편, 『흙』, 문학과지성사, 2009, 150쪽.

28) “어찌하다가 우리는 땅을 잃고 집을 잃고 낙을 잃었을까 이렇게 늙은 농부는 유시호 자기네가 가난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에는 이 문제를 설명할 만한 지식이 없다. ‘별로 전보다 더 잘못된 일도 없건마는 술을 더 먹은 것도 아니요, 담배를 더 피운 것도 아니요, 도적을 맞은 것도 아니요, 무엇에 쓴 데도 없건마는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아끼고 하였건마는, 새 거름 새 종자로 수입도 더 많건마는’ (중략) 넓게 뚫린 신작로, 그리로 달리는 자동차, 철도, 전선, 은행, 회사, 관청 등의 큰 집들, 수없는 양복 입고 월급 많이 타고 호강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 하고 생각도 하여본다.” 위의 책, 151-152쪽.

된 일제의 기형적 개발 정책 때문이다. 사실상 조선 인구의 80%에 해당되고 생산을 책임지는 존재인 농민의 몰락은, 지주제를 축으로 하는 일제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이광수는 지배 구조의 비합리적인 모순의 결정체인 살여울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지옥'이라는 종교적 수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지옥'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한 곳이다.

따라서 이 이후의 서사는 허승이 살여울을 개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장면을 통하여 전개된다. 그런데 이 때 개조의 방향은 경제적으로는 공동소유가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는 개개인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이상적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으로 향한다. 허승이 경성에서 살여울로 도착하자마자 맞닥뜨리는 풍경은 유순으로 상징되는 가난한 농민들이 겪는 부조리한 핍박의 현상이다. 전염병에 걸려도 비싼 진료비 때문에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 뛰어 다니는 사건들을 통해 허승은 농촌 운동의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허승 혹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향이란, 공동소유가 가능한 평등한 공동체이다.²⁹⁾

①

이 왜나무도 그 나무가 선 땅이 근년에 몇 번 소유권이 변동되었지만 이 나무는 말없는 계약과 법률로 이 동네 공동의 소유였다. 이 동네에 사는 이는 누구든지 이 나무 그들의 서늘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 사람뿐 아니라 소도 말도 개도 병아리 거느린 닭들도 이 왜나무 그늘 밑에서 놀든지 낮잠을 자든지 아무도 금하는 이가 없었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늙고 점잖은 왜나무 그늘을

29) 물론 사회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맑스주의자들의 계급투쟁 이론의 가부는 차치하고 어디 건설적으로, 현 사회조직을 그대로 두고, 얼마나 나아지나 해보자 이것은 내가 동네 사람들로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장래의 천국을 약속하는 것보다 당장 죽을 농민을 살릴 도리, 아주 살릴 수는 없다 치더라도, 고통을 감하고 이익을 증진할 도리-이것은 내 자유가 아니냐"(위의 책, 193쪽)

뺨고 아픈 다리를 쉰다 하더라도 누가 못하리라 할 이가 없었다. (중략) 비록 제일조, 제이조하는 시끄럽고 알아보기 어려운 성문울이 없다 하더라도 조상적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거룩한 율법이 있었고, 영혼에 밝게 기록된 양심률이 있었다. 그들은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손해를 지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릇 온 동네의 이익이라든지 명예에 해로운 일을 생각할 줄 몰랐다. 그것은 이 화나무가 가장 잘 안다. 개인과 전체, 나와 우리와의 완전한 조화·이것을 이상으로 삼았다.³⁰⁾

②

혹은 빨거벗고 혹은 적삼만 입고 혹은 고쟁이만 입은 사내, 계집애들은 물장난을 하고 소꿉장난을 하였다. 그들의 몸은 벌레에 걸어서 검었다. 그러나 도회에 들 모양으로 기름기는 없었다. 기름기가 있을 리가 있다. 그들은 만주 조밥에 구더기 끓는 된장밖에 먹는 것이 없거든. 젓먹이로 말하여도 절반이나 굶은 어머니의 젖은 젓이라는 것보다는 젓 묻은 그릇을 씻은 물이었다. 다만 물과 일광만이 아직 불하, 대하, 공동 판매도 아니 되어서 자유로 마시고 쪼이기를 허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맘껏 벌레에 그을고 맘껏 물배가 불렀다.³¹⁾

농촌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함으로써 지향하는 바는, 허송이 살여울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순간 제시되는 살여울 동네 어귀의 '화나무'에 대한 설명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피폐해지기 이전 이상화된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묘사된 인용문 ①의 서술은, 사실상 허송이 바라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이 이상촌은 법률에 의해 속박되는 국가 권력의 작용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공간이다.³²⁾ "양심률"에 의해 지탱되는 완벽한

30) 위의 책, 175-176쪽.

31) 위의 책, 135쪽.

32) 이러한 점에 대한 지적은 허송이 변호사를 그만두고 살여울에 내려온 것을 '실정법에

도덕 공동체이자, 개인이 전체와 아무런 무리 없이 조화되는 공간이라는 이상은 하나의 포도나무로부터 뻗어 나온 수많은 가지로 대표되는 개인-전체 간 기독교적 상상력과도 유사하다. 성문을 대신 양심률을 따르고, “개인과 전체의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상적 공동체의 모토는 인용문 ②, “물과 일광만은 아직 불하, 대하, 공동판매도 아니되어서 자유로 마시고 쪼이기를 허하였다” 부분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흔히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이상향으로 농촌을 그렸다고 비판받는 <흙>의 서사는 이와 같은 이상적 색채에 기인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이광수 개인의 공상이라기보다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공동체가 수월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광수 역시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사실상 서사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겪는 장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흔히 사족처럼 여겨지는 <흙>의 후반부 서사, 즉 유정근이 등장하고 허승이 징역을 살게 되는 서사는 조합 운동의 이념적 토대인 ‘신용’의 문제, 그리고 물욕을 통제하고 기꺼이 자기 소유를 내놓는 ‘애의 정신’의 실현이라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야학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통해 곤궁에서 조금씩 벗어나던 살여울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유정근의 등장으로부터이다. 유정근네 집안은 농민들로부터 장리를 얻어 부를 축적하는 집안이었는데, 농민들이 더 이상 그들로부터 빚을 얻지 않게 되자 허승에게 반감을 가진다. 그리고 허승이 유 순을 죽게 하였으며, 야학 선생인 선희는 허승과 관련이 있는 기생이었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이러한 소문을 믿은 동네 사람들은 점차 허승을 멀리하게 되며, 조합운동도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서로 간 ‘신용’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동체는 곧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³³⁾

기반한 식민지 정부의 근대화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바탕을 둔 자연법적 공동체를 희구하는 모습이라 해석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희원 앞의 글, 132쪽)

삼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살여울의 농민들은 이 동네 생긴 이래로 처음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곤경을 당하였다. 집간 논마지기 밭날갈이는 대부분 유정근이 경영하는 식산조합의 채무 때문에 혹은 벌써 경매를 당하고 혹은 가차압을 당하고 혹은 지불 명령을 당하고 있게 되었다. 빚을 얻어 쓰기가 쉬운 것과 옛날의 신용대부 대신에 신식인 저당권 설정이라는 채권 채무의 형식은 가난한 농민들을 완전히 옴아 넣고 말았다. 승이가 경영하던 협동조합이 농량과 병치료비와 농구 사는 값밖에는 일체로 대부하지 아니하던 것을 야속히 여기던 살여울 농민들은 잔치 비용이거나 노름 밑천이거나를 물론하고 저당만 하면 꾸어 주는 유정근의 식산조합을 환영한 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가여운 농민들은 그것이 자기네의 자살 행위인 줄을 몰랐던 것이였다.

‘도장만 찍으면 돈이 생긴다’

고 살여울 농민들이 생각하게 된 지 이태가 다 못하여 인제는 농량조차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추수할 곡식을 저당으로 한 장릿벼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³⁴⁾

유정근은 작은갑이의 처와의 간통사건이 있는 이후 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작은갑이의 용서로 인해 살아나게 되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마을을 위하여 내놓게 된다. 서사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장면은, 허승의 이상촌 건설 계획이 더욱 견고하게 실행되기 위한 하나의 서사적 장치로 삽입된 것이다.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던 모습을 버리고 마을을 위해 기꺼이 재산을 내놓는 모습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 구성이라는 작가의 이상의 표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33) 김윤식은 <흙>이 표면상으로는 브나로드 운동의 방편으로 씌어졌으나, 심층으로는 동우회 운동의 방편으로 쓰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서울, 1999, 189-192쪽.

34) 위의 책, 709쪽.

'지옥과 같은 재난으로 가득 찬 현실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상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서사는 <흙>보다 10여 년 이전에 쓰인 <허생전>에서도 발견된다. 허생은 전쟁에 대한 흥흥한 소문, 흥년, 도적의 성행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조선의 현실을 타개하는 인물로서, 바다 건너 남국에 이상국을 세운다. 남국에 건설한 두 나라는 자발적인 노동이 이루어지고 자기 소유를 따지지 않는, 아나키즘적 색채가 강한 '낙원과 같은 곳이다. 이광수는 박지원의 <허생전>을 패러디하여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풍요가 보장되어 있고, 신분 구별, 지배-피지배 관계 및 소유의 관념이 없는 이상적 공동체를 다대한 분량에 걸쳐 묘사한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이는 많이 가지고 어떤 이는 적게 가져서 많이 가진 자는 가진 것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적게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를 시기하여 서로 다투지 말고자 함이니 비록 이미 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네것 내것을 가리려 하는 이는 다 이리로 나오시오. 만일 그런 이가 있다 하면 타고 오던 배로 돌아가야 할 것이요.』(중략) 이 모양으로 새 나라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을 먹고 나서 세 때로 갈리어 한 때는 길과 집터를 만들고, 한 때는 산림에 들어가 집 재목을 찍고, 한 때는 벌판에 흩어져 풀을 베어 농사할 터를 만들고, 부인네들은 뒤에 남아 더러는 배 타고 오는 동안에 묵었던 빨래를 하고, 더러는 풀 속과 나무 속으로 다니며, 나물과 과일을 따 오고, 더러는 기명을 부시고, 그 중에도 건장한 부인네는 사내들 모양으로 도끼와 낫을 들고, 산림 속으로 들어가 불 때일 마른 나무를 합니다.³⁵⁾

<허생전>의 이상적 공동체 역시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도적이 성행하며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효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며, 허생이 구원

35) 『허생전』, 『이광수전집』 3, 삼중당, 1962, 110-111쪽.

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흙>의 서사와 유사하다. 이상적 공동체의 기획은 현실의 비참함과 대비되어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돈을 얻기 위해 아내를 팔거나 부모의 유골까지도 파는 도적들의 비참한 사정이 작품 전반적으로 서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허생전>의 허생과 <흙>의 허승은 구원자적 성격에서는 동일하되, 차이점이 있다. 허생이 뛰어난 지혜와 인격을 바탕으로 이상적 공동체를 이끌 능력이 있는 인물인 반면, <흙>의 주인공 허승은 수많은 인간적 약점을 지닌 존재이다. 허승은 정선과 유순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이며, 악의를 지니지 않은 이와 같은 우유부단함이 유순의 죽음과 정선의 일탈을 불러오기도 한다. 또한 기생 산월이와의 일에서 볼 수 있듯 유혹에 약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작가는 허승의 끊임없는 반성과 회심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자 한다. 정선, 갑진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향락적이었던' 인물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회심하듯, 허승 역시 반복되는 내적 갈등을 딛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작가 자신이 이상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건, 즉 단체의 구성 분자로서 개인이 해야 할 몫에 대해 천착한 결과로 보인다. <흙>에서 중요한 것은 이상적 공동체로서의 살여울이라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가 파생시키는 허승, 갑진, 정선 등 다양한 인물들의 소명 의식과 갈등의 극복과정이다. 정선, 선희, 순례, 유정근마저 살여울의 '든든한 일꾼'이 되고, 향락주의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갑진이 검불랑으로 농군이 되어 떠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흙>의 결말은 이러한 주제 의식의 산물이다.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결말이 쓰인 것은, 결말 그 자체보다는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개개인의 갈등과 노력 자체를 중시했던 작가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이광수는 「조선의 청년은 자기를 초월하라」라는 글에서 '자기'

개인/단체를 구분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개인'이 '자기'를 초월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만이 구성 가능함을 강조한다.

일민족의 역사는 이러한 자기를 초월한 개인들의 힘으로 회전되고 갱신되는 것이다. 만일 만인이 다 자기의 고락과 이해만에 몰두하고, 한 사람도 자기를 초월하여 종족과 미래에 사는 이가 없다고 하면 그 종족은 침몰하고 쇠망하고 말 것이다. 한 종족의 갱신과 발전에 필요한 것은 재주보다도 재물보다도(이 두가지가 필요한 줄은 누구나 안다) 진실로 자기를 초월하는 개인의 일군이다. 이 자기를 초월하는 개인을 지도자라 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집단을 지도계급이라고 한다. 이 지도자는 일종족의 뇌세포요, 지도계급은 뇌다.³⁶⁾

이러한 논리를 <흙>에 적용해 보자면, 정선이나 갑진의 쾌락 추구 경향은 '자기'가 될 것이고, 이를 초월한 '개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허승의 지향일 것이다. 정선도 한 다리를 잃고, 갑진도 허승의 인격의 감화를 받아 결국에는 '자기를 초월하게 된다. 이광수가 <흙>에서 그리고자 한 것은 공동체를 구성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 과정이었다. 이것은 1930년대 초반 당대 현실 정치의 맥락과 바로 맞닿아 있다기보다는, 이상적 공동체 건설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정치적 주체에 다름 아니다. '지옥'과 같은 농촌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 수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4. 일제 말기 '징벌'로서의 재난 형상화와 시대적 대응

<사랑>은 본격적으로 기독교, 불교 등 종교적 원리를 전면에 내세워 사회

36) 이광수, 『조선의 청년은 자기를 초월하라』, 『동광』, 1931.8.

약을 없애는 '간호하는 사회'의 이상을 펼쳐낸 작품이다.³⁷⁾ <사랑>의 서사는 크게 보면 순옥이 기독교의 아가페적 사랑 혹은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구원자/보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순옥의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이 단순히 개인적 수양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 원리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지니는 강력한 '감화적' 속성 때문이다. 그러한 사랑의 감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결핵, 유행성 감기 등의 전염병 장면이다. 이 작품에서 전염병 모티프는 절멸되어야 할 사회악의 은유이자, 사랑의 사회라는 이상적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 전환'의 계기로 작용한다.

주인공 안빈은 의사이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 병자들을 구원하고 평화로움과 안정을 주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를 위하여 혈액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결핵을 앓는 아내 천옥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안빈이 의학적 견지에서 환자들의 안정과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순옥은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 만인의 평화를 실현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순옥은 안빈을 사모하면서도 그의 곁을 떠나 허영과 결혼하고, 허영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괴로운 일들을 묵묵히 감내한다. 허영이 귀독과 살다가 심장병에 걸려 위중할 때도 의사로서 그를 치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북간도로 가서 간호에 힘쓴다.

이 작품에서 육체적인 '병'의 증상은 ① 도덕적, 정신적 타락 혹은 ② 새로운 정신적 깨달음과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병 자체가 '참회'의 계기로 기능하거나 사회악의 은유가 된다. 안빈의 아내 천옥님의 병은 전자에 속하는데, 결핵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집착과 미움을 털어버리는 계기가 된다. 옥님의 죽음은 서사 전개상으로 보았을 때 순옥이 허영과 결혼하기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빈이 북한요양원을 지어 결핵 환자들을 돌보게 하는 결말의

37) 안식교의 의료행위와 『사랑』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와다 토모미, 『이광수 소설의 '생명'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0-127쪽 참조

개연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징적인 것은 옥남이 병을 얻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속에 있던 욕심, 질투, 생에 대한 집착 등을 모두 놓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기는 순옥의 헌신적인 간호에 감화를 받아서이다. 사실 순옥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있었지만, 아무런 원망이나 바람 없이 묵묵히 자신과 가족을 간호하는 태도에 감화된 옥남은 자신의 마음을 '참회'한다. 결핵균이 육체로 침투해 들어오는 해로운 병균으로 은유화되듯이, 옥남의 마음 속에 있던 부정적 감정 또한 세균이 육체를 파괴하는 것처럼 해로운 것으로 의미화된다. 그리고 이는 헌신적인 간호 아래에서 '절멸'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 같은 죄인을 아주 버리시지아니하셔서, 성신의 힘을 주셔서 나루 하여금 순옥의 참모양을 보게하셨단말야. 암, 그것이 성신의 힘이 지 내 총명일수가 있어? 아까 말한모양으루 순옥이 하루 하루 이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에 맺혔던 악의가 차차 풀려버린단 말야. 그리구 순옥의 모양이 나보다 자꾸만 높아 보이구, 깨끗해 보이구, 기특해 보이구, 그와 반대루 내 꼴이 점점 초라하게, 아주 말뚱되게 초라하게 변한단 말야. (중략) 『그날 저녁에 잠스결에, 웬 보드라운 손이 내 등을 스친단말야. 깨 보니 순옥이가 내 등에 손을 넣어서 가만히 땀을 씻기지 않았어? 그 때가 새루 세시야. 내가 잠이 깨는 듯한 기척을 보구는 순옥이가 살그머니 빠져서 자리루 돌아가지않았어?』(중략) 그때 순옥이는 천사와 같이 환히 빛이 났어. 순옥이 몸에서는 사람의 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나구, 그리구 그 손의 보드라움, 따뜻함! 순옥이, 이것으로 나는 순옥의 참 모양을 보았어. 순옥이는 화식먹는 사람이 아니라구, 천사라구. 관세음보살님이시라구.³⁸⁾

38) 이광수, 『사랑』 전편, 박문서관, 1938, 276-278쪽. (이하 동일 판본 쪽수만 표기)

결국 옥남은 순옥에게 질투와 미움을 가졌던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옥남이 순옥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용문 ②에서 볼 수 있듯이 순옥의 사심 없는 순정과 옥남에 대한 헌신적인 간호 때문이었다. 자신을 간호하는 자에게 갖는 무한한 사랑의 감정은 자신의 내부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일거에 쓰러뜨릴 만큼 강한 것이다.³⁹⁾

이러한 맥락에서, 옥남과 반대되는 경우로 주목되는 것은 뇌일혈로 쓰러진 허영이 북간도로 가서 겪는 심적 고통과 전염병의 모티프이다. 그는 쓰러진 상황에서 순옥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하며 점점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 간다. 끝없는 질투로 자신의 속을 끓이는 허영의 모습은 죽음 직전에 가서 그 추악함이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육체적인 병의 진행과 정신적 괴로움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작품 전반부에 걸쳐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이다.

그 해 겨울에 이 지방에서만 아니지 마는 악성인 유행성 감기가 돌았다. 특별히 이 지방이 심하여서 병원에서는 이 병을 앓는 사람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었다.

멸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십도 이상의 열이 올라 가지고는 눈물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그러다가는 폐염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 그 균의 독소가 대단하여서 심장을 침노하는 일이 많고 혹시 살아나더라도 신장염이나 신경통 같은 것을 남기는 일이 많았다.

연길에 이 병이 들어온지 삼주일이 넘지 아니하여서 묘지에는 새로운 무덤이 늘고 골목골목에 곡성이 아니 들리는데가 없었다.⁴⁰⁾

39) 이광수의 작품에서 간호 대상이 간호하는 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장면은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어린 벼에게』에서도 앓고 있는 임보형과 그를 간호해준 김일련 간의 관계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임보형은 만리타향에서 앓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이마를 짚어준 김일련에게 열렬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유정』에서도 정임이 최석의 방문을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사랑』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보다 더 전면에서 나타나서 미움,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대립되는 것임이 강조된다는 차이가 있다.

40) 이광수, 『사랑』 후편, 박문서관, 1939, 486-487쪽.

때마침 북간도에 발생한 유행성 감기는 허영이 죽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미움과 질투로 몸부림치는 추악한 모습과 직접적으로 겹쳐진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참혹한 상황은, 허영의 투병을 예시로 그 재난의 구체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허영은 허세가 있고 경솔하며 욕심 많은 인물형으로 그려지는데, 그의 투병과 죽음은 부정적인 성격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허영은 도저히 살아날 도리가 없는 것 같았다. 원체 심장이 약한 데다가 고열로, 또 인플루엔자균의 중독으로, 발병된지 사흘이 못 하여서부터 맥박은 말뚝 되게 약하고 또 부정하였다. 의식이 있는것도 오전 뿐이오 오후가 되면 혼수상태에 빠졌다.⁴¹⁾

강심제 주사로 버티어 오던 허영의 심장은 점점 약하여지는 것이었다. 허영은 어디서 나온 기운인지 두 발로 이불을 걷어 차고 눈을 부릅뜨고 팔을 내어 돌렸다. 사전기(死戰期)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 놈! 이 놈아!』

하고 허영은 가위눌린 사람의 아우성을 하였다.

『영아. 영아아.』

하고 한씨는 허영을 흔들었다.

『순옥이-순옥이.』

하고 허영은 고개를 내어 돌렸다.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순옥이가 허영의 곁으로 가라는 것을 한씨가 순옥의 가슴을 팔로 탁 쳐서 떠밀쳤다.

순옥은 갑자기 기침을 하고 빨간 피를 뱉었다.

41) 위의 책, 488-489쪽.

『오 네 년도 인제는 죄악이 관영하여서 피를 토하는구나.』

하고 한씨는 이를 같았다.⁴²⁾

순옥은 북간도에 퍼진 유행성 감기를 치료하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리고 만다. 그 병이 폐렴이 되어 피를 토할 지경에 다다른데, 허영의 어머니 한씨는 그것을 “죄악이 관영하여서”라고 말한다. 물론 이 말은 순옥에 대한 근거 없는 미움으로부터 나온 말이지만, 육체적인 병의 증세를 도덕적 견지로 해석 해내는 작가의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미움과 질투로 끓고 있는”⁴³⁾과 같은 서술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인물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마치 그 고통이 생활에서 저지른 죄악의 결과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허영, 허영의 모친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북간도에 널리 퍼진 전염병의 영향은 두 가지의 인물군을 낳는다. 허영, 허영의 모친과 같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순옥이나 간호원장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간호하다가 자신도 병에 걸리거나 죽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에 이르러 순옥, 안빈과 같은 인물형이 확대되고 그 의미를 더욱 확실히 부여받는다. ‘구원자-구원 대상’으로 인물이 이분화되는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은 <사랑>의 중심 서사가 간호하는 자-간호 받는 대상 간의 구분을 바탕으로 하는, 병의 치유를 근간으로 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순옥이 허영과 그의 모친을 간호하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한 이후, 안빈의 북한요양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북한요양원은 마치 도가(道家)의 무릉도원처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이상향처럼 그려진다. “북한에 풀꽃이 피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며” “비취옥 빛이 나는 날개를 팔랑거리는 나비가 날아다니

42) 위의 책, 496-497쪽.

43) 위의 책, 498쪽.

다⁴⁴⁾는 묘사는 이러한 속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상적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안빈, 인원 등 인물들의 종교적 경지에 다다른 사랑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은 이상향으로서의 북한요양원과 그러한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한 설명이다.

안빈, 인원, 수선, 영옥, 이러한 사람들 속에 있는 순옥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나온 것 같았다. 그러한 사람들의 온기로 빛으로 이 요양원에 있는 직원이나 일꾼이나 또 환자들이 모두 부드러운 금빛과 향기로운 연꽃 바람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 요양원에서 약 일년간 치료하고 나간 어떤 시인이,

『북한의 낙원

거기는 밝은 빛과 따뜻한 대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에서 솟는 기쁨이다.』

하고 일년 동안 이 분위기 속에 있을 기회를 얻게 한 제 증병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한 것이 시인적 과장은 아니었다.

순옥이가 다른 환자 보다도 몇갑절, 아마 수없는 갑절, 이 북한요양원의 따뜻함과 기쁨을 느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순옥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환경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연길 선교사 사회의 분위기가 심히 맑고 엄숙하였으나 그것은 마치 고딕건물 모양으로 좀 무겁고 음침한 것 같았다. 북한의 그것과 비교하면⁴⁵⁾

<흙>에서의 살여울이 공동 소유와 서로 간의 신용이라는 경제적, 도덕적 원리에 기반을 둔 이상적 공동체였다면, <사랑>에서의 북한요양원은 그 현실적 성격이 무화되어 있다. 다만 이광수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관계적 원리로서의 '사랑'이다. 서로 병자로 생각하여 공흥히

44) 위의 책, 532쪽.

45) 위의 책, 507-509쪽.

여기는 곳, 그곳에는 어떤 미움이나 질투, 시샘이 들어올 수 없다. <흙>에서의 허승이 당면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라는 과제가, 순옥에 이르러 더욱 큰 규모로 확장된 셈이다. 현실 공간을 벗어난 이와 같은 이상향의 제시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상향과 대비되는 현실 사회의 실상을 반추하여 보여준다는 것에 있다.

사실상 <허생전>, <흙> 등 창작 초기부터 이광수가 그려내는 이상적 공동체의 구상에는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인간들의 집단'이라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소유제의 철폐와 평등 지향성을 보이는 <허생전>의 허생이 그러했고, 서울의 변호사 자리를 마다하고 가난한 농촌으로 돌아온 허승이 그러했다. <사랑>에 나오는 희생적 사랑은 이와 같이 나와 남의 구별 없이 상생과 평등을 지향하는 의식의 산물이다. 사적 소유에 대한 비판이나 구체적 방책으로서의 농촌 운동 등의 서사는, <사랑>에서 간호하는 사회의 이상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의사환자 관계는 일제 말기 당면한 현실이 치유가 필요할 만큼 악화된 것이라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중일 전쟁 이후 직접적 폭력이 난무하는 정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광수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단순히 인간들 사이의 이상적인 행동 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공간을 초월한 에너지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는 것'⁴⁶⁾에서도 뒷받침된다. 이는 작가 자신의 분신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안빈의 언급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는 순옥이 북간도로 허영을 데리고 간 처사를 '위대한 사랑의 처사'라 말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단지 순옥과 허영이라는 인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중생의 영역으로까지 보다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 것임

46) "그러니까 순옥이가 허 영군이나 허 영 군 자당에게 하는 일도 결코 결과 없이 스러질 원인이 될 리는 없는 것이오. 이 생애 안 되면 다음 생애, 다음 생애도 안 되면 또 다음 생애, 언제나 순옥이가 허 영군의 마음에 심은 씨가 날 날은 있는 것이오.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 말이지마는, 공간적으로 본다면 순옥이 한 사람의 사랑의 일이 여러 천, 여러 만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여 놓은 것이야. 순옥이가 벌써 사랑의 불을 붙여 놓은 사람도 여러 사람이오." 위의 책, 431쪽.

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안빈의 의미 부여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광수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함의는 단순히 인간 사회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도덕적 원리 정도의 의미를 벗어나, 시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세계 조직의 원리이자 절대적 법칙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이 생명의 본질"이라 말하는 기독교적 사유와, 불교적 인과의 원리가 결합된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이광수가 '사랑'이라는 제목 하에 놓으려 했던 세계 '개조'의 방책을 짐작할 수 있다. 의지하던 정신적 지주 안창호의 죽음, 수양동우회의 좌절 등으로 현실적인 활로가 닫혀 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⁴⁷⁾ 종교적 수사를 빌려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람직한 이상사회의 모습을 순옥, 안빈, 옥남, 허영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려내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랑>에 나온 전염병의 은유는 그 이후 창작된 <원효대사> (1942.3.1~1942.10.31)에도 이어진다. <원효대사>에서는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원효의 구제 행위가 원효 개인의 '속죄'이자 수행이기도 하며, 동시에 세상을 위한 것이 된다. 파계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이광수의 원효' 특유의 강박이 간호를 통해 해소된다는 설정은 <사랑>의 순옥과도 공통적이다. 원효는 요석공주와의 일로 파계를 하고 자신이 더 이상 존경받을 만한 원효대사가 아니라, '더럽혀진 몸'임에 괴로워한다. 그래서 본래 무애(無碍)행을 추구하던 자신의 수행 방식을 바꾸어 두타(頭陀)행을 행하기로 한다.⁴⁸⁾ 그러한 결심 이후에 처음 맞닥뜨린 일이 바로 역병이 돌던 동네에 들어가 헌신적인 간호를 펼치는 일이었다.

날씨가 살랑살랑 추워졌다 원효의 옷은 더러워지고 또 추웠다. 여러날 잘 먹

47)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솔, 1999, 329-336쪽.

48) 거칠 것이 없음을 인식하는 무애행과 고행을 통해 도를 얻으려는 두타행의 대조는 파계 모티프와 관련하여 의미심장하다.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역으로 파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원효는 몸이 제 몸 갖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효는 평생 처음으로 중생을 도아준것이 깃뻏다. 설사 그 무서운 병이 제게 옮겨서 길가에 쓸어져죽더라도 세상에 왔던 보람을 비로소 한 것 가뻏다.

이러케 생각할수록 자기의 지나간 생활이 엇더케 공허한것임을 깨달았다.⁴⁹⁾

이 부분에서의 서술은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동네를 보는 원효의 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역병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의 모습 보다는 원효가 그들을 어떻게 간호했는지, 그리고 간호를 받은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강조되는 것이다. 인용문에서처럼 원효는 아이러니하게도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끼게 된다. 즉, <원효대사>에서의 전염병 장면은 작품상에서 원효가 자신의 파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원효가 행하는 수재민 구제도 역시 속죄와 회개의 결과로서의 구제, 두타행의 실행이라는 주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제 말기 쓰인 두 작품에 나타난 재난 모티프는 공통적으로 '간호와 그로 인한 개인과 세상의 감화'라는 주제로 수렴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효대사>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원효의 끈질긴 죄의식의 잔해가 수양동우회 사건과 관련된 강제 전향이 작가의 내면 차원에서 기실은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⁵⁰⁾ <원효대사>의 중심 서사는 파계와 그 이후 원효의 고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파계 장면 이후 전염병, 수재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원효의 행적이 서술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원효대사>에서 재난의 모티프는 파계에 대한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덜려는 원효의 강박을 오히려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효의 노력은 홍지동

49) 이광수, 『원효대사』 97회, 『매일신보』, 1942.7.18.

50) 방민호, 앞의 책, 359쪽.

산장에서 1939년 5월 집필을 시작하여 이듬해 5월에 집필을 끝낸 <세조대왕>에 서술된 세조의 심리와의 유사한 것이다. 계유정난을 회고하는 만년의 세조의 시선은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원효대사>에서의 '전염병' 모티프는 무언가로 인해 오염된 자신의 마음과 이를 씻어내려는 마음 사이의 분열을 오히려 서사의 중심축으로 내세우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 말기 작품에 나타나는 전염병의 은유와 간호라는 주제는, 파시즘의 세력이 강화되며 날로 악화되어 가는 인류 사회를 타개해 가는 이광수 나름의 방책이다. 그 방책은 '악(惡)에 대한 선(善)의 승리'라는 기독교적 감성에 기반한, 인물의 울골은 희생적 사랑의 실천이거나 혹은 끊임없는 고행으로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려는 불교적 사유의 모습을 띠고 있다. <사랑>, <원효대사>는 공동체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어려워졌던 시대적 환경에서 개인 내면과 종교적 사유, 감성을 접목시켜 시대에 대응하는 작가 내면의 편린을 드러내 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이광수 문학에 있어서 현실 규정의 근저에 있는 종교적 감각,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그것이 공동체의 이상과 어떤 방식으로 접합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재난' 모티프에 집중할 수 있는데, 흔히 신에 의한 징벌이나 인간의 운명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재난 모티프는 이광수의 작품 속에서 '공동체의 이상 실현을 위한 대규모 방향 전환'이라는 특수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무정>, <어린 벗에게>라는 초기 작품에서는 홍수나 파선 모티프가 사용되었고, 개인의 발견 및 그에 기반한 인간의 공동 운명 자각의 계기로 의미화되었다. 이 때 각 모티프는 이광수의 사상 안에 종교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승고’라는 감정 범주, 혹은 ‘영혼’이라는 기독교적 사유 범주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중기 작품인 <흙>에서는 이상촌 운동이라는 당대 기독교 계열 사회운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때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살여울은 ‘지옥/천국’이라는 공간적 위상을 부여받으면서 도달해야 할 지상선의 목표로 제시되는데, 그 과정에서 식민지에서의 파행적 근대화 과정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창작 초기에서 중기로 오면서 이광수의 종교적 감수성은 작품 내에서 공동체의 이상이 탈피 혹은 도달해야 할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라는 ‘운동적 개념’으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흙>이라는 작품이 수양동우회라는 구체적인 단체의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한다. 후기 작품인 <사랑>에서는 그간의 작품 속에서 강조했던 도덕원리를 본격적 종교 원리로 전면화하여 내세운 작품으로서, 전염병을 사회악의 은유로 사용하고 있다. 전염병 모티프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적 반응으로 내세운 것은 <원효대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인과응보’, ‘절대자의 섭리’와 같은 종교적 사유는 온 사회를 조직하고 지배하는 절대적 원리로서, 이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자체가 곧 이상적 사회 지향과 별개가 아니라는 작가의 사유를 피력한 소설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이광수에게 있어 종교적 상상력은 ‘수양’으로 표상되는 개인의 질적인 변환을 이끈 힘이었으며, 공동 운명에 놓인 타자와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근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기에서 후기로 나아갈수록 수양동우회의 이념적 지향, 시대적 환경에 대한 특정한 대응방식의 일례로 그 의미가 변환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감성 구조가 재난 모티프가 함의하는 바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청춘』, 『매일신보』, 『동광』
 이광수, 『사랑』 前後 편, 박문서관, 1938(9).
 _____, 『이광수전집』 3, 삼중당, 1962.
 _____, 『이광수전집』 10, 우신사, 1979.
 이광수, 김철 역주, 『바로잡은 무정』, 문학동네, 2004.
 이광수, 이경훈 편, 『흙』, 문학과지성사, 2009.

2. 단행본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숲, 1999, 189-192 / 329-336쪽.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239-270쪽.
 서영채, 『사랑의 문법』, 문학동네, 2004, 126-128쪽.
 _____, 『아침의 영웅주의-최남선과 이광수』, 소명출판, 2011, 376-379쪽.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71-147쪽.
 I. 칸트, 김상현 역, 『판단력 비판』, 책세상, 2009, 166-167쪽.
 아지자·올리비에리·스크트릭, 장영수 역, 『문학의 상징·주제 사전』, 청하, 1989,
 93-95쪽.
 Edmund Burke, 김혜련 역,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한길사, 2010, 112-115쪽.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역, 『『무정』을 읽는다』, 소명출판, 2008, 385-398쪽.
 Nasrin Qader, *Narratives of Catastrophe*, Fordham Univ. Press, New York, 2009, p.6.
 Pitirim Sorokin, *Man and Society in Calamity*, Greenwood Press, West Port Connecticut,
 1968, pp.13-16.

3. 논문

박슬기, 『이광수의 개조론과 기독교 윤리』, 『한국현대문학연구』 35집, 2011.12, 69-94쪽.

- 서영채, 「죄의식, 원한, 근대성: 소세키와 이광수」, 『한국현대문학연구』 35집, 2011.12, 35-68쪽.
- _____, 「이광수, 근대성의 윤리」, 『근대문학연구』 19집, 2009, 147-178쪽.
- 서희원, 「이광수의 문학, 종교, 정치의 연관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88-146쪽.
- 오윤희, 「『흙』의 식민지 근대와 수사적 특이성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Vol.5 No.2, 2004, 39-63쪽.
- 이철호,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인격'과 그 주체 표상:『흙』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 연구』 56집, 2011, 103-131쪽.
- 장규식, 「1920년대 개조론의 확산과 기독교 사회주의의 수용, 정착」, 『역사문제연구』 21집, 2009, 128-129쪽.
- 정주아, 「서북 근대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6쪽.
- 차성연, 「1930년대 농촌계몽소설에 나타난 농촌의 의미-이광수의 『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7집, 2011, 97-121쪽.
- 한승욱,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희생양 모티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2005, 13-32쪽.
- 와다 토모미, 「이광수 소설의 '생명'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0-127쪽.

■ 영문초록

The Connection between Catastrophe Motives in Kwangsu Lee's Novels and Value of Idealistic Community

Seo, Eunhy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catastrophic motives' in Kwangsu Lee's novels and short stories, which are related to his own religious sensibility and political idea. Generally, the imagination of catastrophe is closely related to the religious sensibility including awakening people's helplessness, the hope for transcendency or the punishment from God in literary tradition. However, The catastrophic motives in Lee's works mainly function as an opportunity of huge overturn towards ideal society, as we can see flood sight of Samrangjin. This kind of catastrophic motives continue to the latter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y have various meanings even though many people call it just 'national consciousness'.

Chapter 2 examines the meaning of catastrophic motives in early part of Lee's works, <Heartlessness>, <To a little friend>. The famous flood sight in <Heartlessness> shows the process of finding a group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The shipwreck scene in <To a little friend> is an important chance for main character to realize his lover as a member of compatriot or humankind. The new concepts such as 'Sublimity' or 'Soul' can be used explaining character's emotion, justifying the subject of solidarity for a group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Chapter 3 discusses the meaning of catastrophic motives in middle part of Lee's works, <Earth>. Lee emphasized miserable colonial reality including hunger and poverty, and he named it as 'a hell' in Christianity term in the work. He also accented the will of building ideal

village against Japanese imperialist government. Chapter 4 examines the meaning of catastrophic events in the latter part of Lee's works, such as <Love> and <A high priest, Wonhyo>. Lee shows the worth of agape and tried to expand it to the main principles of organizing ideal community in <Love>. The infectious disease scene is kind of metaphor of social evil in this work. Same motif is used in <A high priest, Wonhyo>, demonstrating complicated Lee's inner side against compulsory turn by a Japanese imperialist in 1940s. The infectious disease in this work makes Wonhyo helping other people, ultimately makes him come through the sense of guilt, even though it failed repeatedly.

In conclusion, the catastrophic motives in Kwangsu Lee's works have various meanings, such as an opportunity of realizing other people who are in common destiny, miserable reality in colonial period, an metaphor of social evil in strong influence of facism. This kind of meaning closely relates to his own thought of Christianity and Buddhism.

Key Words: Catastrophe, Sublimity, Colonial modernization, The ideal village movement, mutual aid, facism

접수일자 : 2012.2.28.

심사기간 : 2012.3.17-3.28.

게재결정 : 2012.3.31.